

2023년 봄 학기
전시간 훈련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바울의 서신서들 안에 있는 중점들

메시지 11

인성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유기체가 되기 위해
그분을 담고 그분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선택된 그릇들

성경: 창 2:7, 잠 20:27, 살전 5:23, 롬 9:21, 23, 행 9:15, 고후 4:6-7

- I.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절차의 첫째 단계는 사람을 생명이신 그분 자신을 담는 그릇으로 창조하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시자, 사람이 산 혼이 되었다”—창 2:7.
- A. 하나님은 삼일이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영과 혼과 몸’이라는 세부분으로 된 존재로 만드셨다—살전 5:23.
1.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사람의 몸을 지으시어 사람이 그의 외적 표현이자 물질적인 것을 접촉하는 기관인 몸을 갖도록 하셨다. 우리의 바깥 부분인 몸은 세상을 인지하는 외적인 기관으로서 물질적인 세상을 접촉할 수 있게 한다.
 2. 하나님은 사람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수신기이자 하나님을 접촉하고 담고 실질화하는 기관인 영을 갖게 하셨다. 우리의 가장 깊은 부분인 영은 내적 기관으로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게 한다—요 4:24, 롬 1:9.
 3. 사람의 혼은 사람의 인격이며 바로 그 사람 자신이다 (출 1:5, 행 2:41, 비교 마 16:26, 눅 9:25). 사람의 혼은 다른 어떤 요소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과 사람의 영이 결합함으로써 산출된 것이다. 혼은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구성되며, 정신적인 의식을 가지고 정신적인 영역을 접촉한다. 사람의 혼은 우리의 영과 몸 사이에 있는 기관으로서 자의식을 갖고 있으며 우리가 인격을 갖도록 한다.
 4. 우리의 영 안에는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우리의 혼 안에는 우리의 자아가 거하며, 우리의 몸 안에는 육신의 감각들이 거한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때, 하나님은 먼저 거듭남을 통해 우리의 혼을 소유하시고(요 1:12-13, 3:5-6, 롬 8:10),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그분 자신을 우리의 영에서부터 우리의 혼 안으로 확산하시어 우리의 혼을 적시시고 변화시키시며(롬 12:2, 고후 3:18), 우리의 혼을 통하여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시고(롬 8:6, 11, 13) 그분의 생명 능력으로 우리의 죽을 몸을 변형시키신다(빌 3:21, 고후 5:4).
 5.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영이 있고 하나님을 살아내고 표현하는 혼이 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표현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표현하는 것이 사람의 기쁨이고 즐거움이어야 한다.
 6. 사람의 행복과 오락은 반드시 하나님 자신, 즉 객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주관적이고 체험적이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어야 한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살아내는 것이 사람의 기쁨이다.
- B. 삼일 하나님은 세 부분으로 된 사람을, 인성 안에서 그분을 표현하는 유기체가 되도록,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역량이 있고, 하나님과 유기적으로 연결(요 15:4-5, 롬 11:17-24) 될 수 있는 살아 있는 그릇으로 창조하셨다.
- II. 히브리어로 창세기 1 장 2 절의 ‘숨’은 ‘네사마’이며, 잠언 20 장 27 절에서는 ‘영’으로 번역된다. 이것은 창세기 2 장 7 절의 숨이 사람의 영이고, 이 영은 주님의 등임을 의미한다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이라 / 내적 존재의 모든 깊은 곳을 살핀다”—잠 20:27:

- A. 신성한 기름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을 켜기 위해 우리 안으로 오실 때, 우리는 빛 비춤 받고, 밝혀지고, 능력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저의 등불을 밝혀주는 분이시니 / 여호와 저의 하나님께서 저의 어둠을 밝혀 주십니다. / 저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무리와 맞설 수 있으며 / 참으로 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시 18:28-29, 딤후 1:6-7.
- B. 등잔대인 교회에는 일곱 등불이 있으며, 일곱 등불은 하나님의 일곱 영, 즉 일곱 배로 강화되신 영(계 4:5)이시고, 우리의 영은 주님의 등(잠언 20:27)이다.
 - 1. 따라서 우리 안에는 두 등불, 하나님의 영과 우리 사람의 영이 있다. 우리 사람의 등불 안에 더 강하고 위대하며 일곱 배로 강화된 등불이 있다. 등불의 기능은 빛나는 것이다.
 - 2.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영은 부서진 등이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 그 등은 복구되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이 두 등불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매우 많은 비춤이 있다.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한 영”이므로 두 등불이 하나가 된다 —고전 6:17.
 - 3. 우리가 변화되려면 반드시 우리 혼(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모든 방들이 주님께 완전히 열림으로써 우리 속에 있는 이 이중 등불이 두 배로 비추어 우리의 내적 존재의 모든 가장 깊은 곳들을 살필 완전한 자유를 가져야 한다—시 139:23-24.
 - 4. 가장 많은 변화를 체험한 사람은 주님께 절대적으로 열려진 사람이다. 우리는 “주님, 당신께 저를 완전히 열어 드립니다. 계속해서 당신께 열려 있기 원합니다. 저의 온 존재, 저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감정들을 열어드립니다. 저를 철저히 살피시고 비추시고 살리소서. 저는 그것을 다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생명의 빛이 우리를 공급하여 우리를 생명의 성 새 예루살렘을 위한 생명의 사람들이 되게 할 것이다—롬 8:2, 10, 6, 11, 계 22:1-2, 5.
- C. 하나님은 사람의 영을 특별하게 지으셨다. 사람은 온 우주의 중심이고, 사람의 중심은 사람의 영이다—스 12:1, 욥 32:8.
- D.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영께서 일하시는 곳(롬 8:16)이며, 그 영이신 주님께서 머무시는 곳이다(고후 3:17, 딤후 4:22).

III. 바울은 우리가 공홀과 존귀와 영광의 그릇으로 선택되었다고 말한다—롬 9:21, 23 비교 행 9:15.

- A. 성경 전체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은 내용이시고, 우리는 이 내용을 담기 위해 지어진 그릇이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담지 않고 우리의 내용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의미한 모순일 뿐이다.
- B. 하나님은 우리가 존귀의 그릇(롬 9:21)이 되도록 존귀한 하나님이신 그분 자신을 담은 그릇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영광의 그릇(롬 9:23)이 되도록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을 알게 하신다. 이 모든 것은 그분의 공홀에서 온 것이고 그분의 공홀에 따른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경배해야 하며, 그분의 공홀을 인해 그분께 경배해야 한다!(찬송가 23 장, 22 장 / 영한 동변 찬송 25 장, 26 장)
- C. 공홀과 자비는 유기적으로 분리될 수 없지만, 그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는 구별된다. ‘공홀’은 우리의 비참한 상태에 의해 유발된 하나님의 외적 행하심이지만, ‘자비’는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내적 애정이다.
 - 1. 누가복음 1 장 78 절과 79 절은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공홀히 여기시는 마음에서 온 것이다. 이로써 돋는 해가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우리의 발을 평안의 길로 안내할 것이다” 라고 한다.
 - 2. 로마서 9 장 15 절과 16 절은 “‘내가 공홀히 여길 사람을 공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달음질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오직 공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

3. 예레미야는 “그러나 저는 이것을 마음에 되새기므로 / 소망을 갖습니다 / 여호와와 자애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 / 그분의 자비는 무궁하다네 /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 주님의 신실은 크기도 하십니다 / ‘여호와는 나의 몫 / 그러기에 나 그분께 소망을 둔다네’ 하고 내 혼은 말한다네.” 라고 말한다—애 3:21-24.

- a.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무궁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를 위하여 이스라엘의 남은 이들을 보존했다.
- b. 예레미야가 여호와와 자애로 아침마다 새롭다고 말한 것은 그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신 주님을 아침마다 접촉했음을 가리킨다. 주님과 접촉을 통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자애와 자비와 신실함에 관한 이 말씀을 받았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아침마다 주님을 접촉하고, 우리의 모든 소망을 주님께 두고, 그분을 바라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애 3: 22-25, 55-56.

IV. 고린도후서 4 장 6 절은 “왜냐하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밝히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다. 이어서 7 절은 “그러나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탁월한 능력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

- A. 7 절의 ‘이 보배’는 6 절의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킨다. 헬라어로 ‘얼굴’이라는 단어는 고린도후서 2 장 10 절의 ‘인격’과 동일한 단어이다.
- B. 이 ‘얼굴’이라는 단어는 눈주위 부분, 즉 내적 생각과 느낌을 보여주는 눈언저리의 모습을 가리키는데, 그 부분은 그 인격 전체를 나타낸다. 이것은 사도가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즉 그리스도의 눈에서 표현되는 그분의 온 인격을 나타내는 눈언저리에 따라 살고 행동했음을 가리킨다.
- C. 바울은 그리스도를 가장 가깝고 친밀하게 접촉하며 그리스도를 산 사람이었다. 그는 주님의 눈언저리, 즉 주님의 임재에 따라 행동했다.
- D. 온 우주 안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보배로운 것은 없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수록 우리 안에 내주하는 보물이신 예수님의 보배로움에 대한 달콤한 느낌을 더욱더 가질 것이다—출 33:11, 14 과 각주 1.
- E.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킬 때 너울이 벗겨지고, 우리는 거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한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입받고, 하나님으로 빛나고, 하나님을 비추어내고, 다른 이들 안으로 하나님을 비추게 한다—고후 3:16, 18, 사 60:1, 5 상, 욥 42:5, 출 34:4 와 각주 1, 출 34:29 와 각주 1, 잠언 4:18.
- F. 우리는 주님의 신성한 영광을 위해 주님을 향해 산다(사 43:7). 더 나아가 참다운 교회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실 때 우리는 한 단계의 영광에서 다음 단계의 영광으로 변화되고 있다(고후 3:18, 4:5-6, 5:14-15, 엡 3:16-17, 21 상).
- G.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생활과 봉사는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고전 10:31, 사 43:7, 요 7:18, 8:50 상, 17:4, 롬 11:36.